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5. 21.(수) 16:00 배포 2025. 5. 21.(수) 14:00

철강업계 애로 해소 위해 충남 당진서 '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' 개최

- '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' 운영하여 관세 애로 통합·신속 대응 지원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(단장: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, 이하 지원단)은 5월 21일(수), 철강·기계 산업 중심지인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·부곡지구에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'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'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아산 국가산단(고대·부곡지구)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개요 >

▸ 일시/장소: '25.5.21.(수) 14:00~16:00 /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회의실

▸ 참석자: (기관) 지원단, 충남도, 당진시, 코트라, 중진공, 수은, 무보, 무협, 산단공 등
(기업) 대한전선㈜, 희성피엠텍㈜, 동국제강㈜, 케이지스틸㈜, ㈜대한피엔씨, 삼환강업㈜

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의 관세 관련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, 기존 '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'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·개편한 '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'(4.17 출범)의 두 번째 현장방문이다. 최근 美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발효(3.12)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, 미국향 수출 차질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.

이 행사에는 지원단, 충남도, 당진시, 코트라, 중진공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산단공 등 관계 부처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참석기업들은 정부의 對美 관세 관련 공동 대응 및 지원 요청,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 지원, 해운 물류비·바이어 발굴 등 마케팅 지원과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로를 건의하였다. 이에 참석 기관은 각 기관의 주요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.

김동준 부단장은 "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, 철강 산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"며, "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'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'를 중심으로 적극 뒷받침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 · 수주지원단 수출총괄팀	책임자	팀 장 주현동 (02-6000-5783)
		담당자	사무관 이한슬 (lhs2735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